

광주시 '스마트 융합 호남 2012' 컨퍼런스

내년 IT 최대 화두는 '빅데이터 활용'

2위 '지식재산권' 3위 '클라우드 컴퓨팅' 지역 IT·모바일 산업 육성 전략 모색

내년 IT(정보통신)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빅 데이터(Big Data)'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융합 호남 2012' 컨퍼런스에서 김용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책임연구원은 2013년 IT산업 핫 이슈로 '빅 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꼽았다.

빅데이터란 일상 속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해 특징이나 유형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IT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빅 데이터 이슈에 따라 형성된 전 세계 IT시장이 올해 280억 달러(약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했다. 내년에는 60억달러 늘어난 340억달러(약 37조6000억원)로 전망했다. 시장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다.

2위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중요도 증대'가 차지했다. 삼성전자-애플의 특허소송과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업체들에게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IT 사용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확산'이 3위에 올랐다. 해외에 비해 아직 부진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내년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위는 '신정부의 IT 정책 방향'이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 활성화'를,

노무현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이명박 정부는 'IT 융합'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내년에 들어서는 정부의 IT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높고 있다.

다음으로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신종 보안 위협', '스마트 홈 및 가전 서비스', 'HTML5', '소셜 미디어 및 소셜 엔터프라이즈', '차별화

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 경쟁' 등의 순으로 10대 이슈에 선정됐다.

이는 지난 9월5일부터 14일까지 실제 IT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7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편, '스마트 융합 호남 2012' 컨퍼런스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한국스마트미디어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IT융합 확산 전략과 2013 글로벌 열 생태계 변화, 스마트 콘텐츠 해외 퍼블리싱 사례 등이 발표됐다. 또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IT선도업체 관계자들은

스마트 콘텐츠 진화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최근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티스튜디오 이대형 대표는 모바일게임 사업의 육성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정여배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ICT 산업과 스마트 콘텐츠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기업들이 최신 IT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융합 호남 2012' 컨퍼런스에서 안창용 지식경제부 과장이 'IT융합 확산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기침체로 대형공장 경매 쏟아져

올들어 30억 이상 1203건...684억 영광 TKS조선소 최고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조선소와 공장 등 수백억원대 생산시설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영광에 위치한 TKS조선소는 올해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싼 공장에 해당했다. 감정가는 684억원6571만원으로 150억원의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졌다.

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감정가 30억원 이상의 공장 경매물건은 모두 1203건으로 집계됐다.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최근 공장 경매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규모 영세공장뿐 아니라 조선, 철강 분야의 대형공장이 늘었다는 점이다.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되는 영광군 흥농읍 TKS조선소는 철강용 공단지 내의 공장 부지 2만8173㎡와

공장 건물 165㎡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박 관련 기계기구가 포함됐다.

TKS조선소 경매는 채권은행 등이 대출해준 15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2010년 10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여러 곳에서 중복 경매 신청이 돼 총 경매 청구액은 36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3월 30일 첫 경매 이후 수차례 유찰돼 7일에는 최저가 224억 3484만원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삼호조선 거제 공장도 감정가 154억2471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삼호조선은 조선 호황기인 2000년대에 수주량 기준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될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던 곳이지만 올초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했다.

토지 3만1528㎡와 공장 5418㎡, 기

계 및 구축물 15점이 함께 경매에 부쳐져 최근 감정가의 105.8%인 163억 21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이 높아 보이지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 은행이 받아야 하는 26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30억원 이상 공장 경매물건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매년 200건씩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1030건에서 지난해 10005건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경매에 나와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 평균 낙찰가율(낙찰가 대비 감정가 비율)은 66.3%로 떨어졌다. 지난해까지는 평균 70%를 넘었다.

올해 대형 공장의 평균 낙찰가율은 30억원 미만 공장의 낙찰가율 71.7%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무를 위한 노동 판례' 광주경총 인사노동교육

광주경영자총협회는 7일 오후 7시 남산단지관리공단 3층 강당에서 지역기업 인사·노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를 위한 노동 판례 연구'를 주제로 제8차 인사노동교육을 무료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노사 분쟁 및 해결 사례에서 판례가 단순한 판단기준의 의미를 넘어 분쟁예방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각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현장에서 유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력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K3 계약 2만대 돌파



기아자동차는 9월 17일 출시한 준중형 세단 K3의 계약대수가 5일 현재 2만34대로 영업일 기준 34일만에 2만대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K3 판매목표인 1만9000대를 넘어선 것이다. K3의 계약대수는 일일 차량 출고 대수 대비 최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

도받기까지 최대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K3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에 다 다양한 첨단 사양을 결합한 기아차의 차세대 준중형 세단이다. 출시 첫 달 9일(영업일 기준)만에 3616대가 팔린데 이어 지난달에는 7632대가 판매되며 준중형 시장에서 동종 모델에 이은 기록을 세웠다. /*박정욱기자 jwpark@

상장사 1800개선 붕괴...2년래 최저 일신규 상장도 작년 절반도 안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사 수가 1800개를 밑돌며 2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 증시에서 '후환 물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적부진에 따른 부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줄지 않

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일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신규상장한 기업은 28개사에 그쳐 작년 동기(58개사)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재상장기업도 올해 1~10월 3개사로 작년 동기(8개사)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기업들이 IPO를 꺼리고 있어 상장사로 새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올해 1~9월 IPO 건수는 18건으로 작년 동기(42건)의 43% 수준에 그쳤다. 상반기 IPO 건수는 9건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IPO가 줄어든다니 자연스럽게 신규상장 기업 수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기업들이 IPO를 주저하는 것은 불경기 탓에 '물값'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은 60개이다. 이 가운데 전체 20%인 12개 종목의 상장폐지 원인이 자본잠식이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이같은 상장기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불황이 국내 증시 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상장사 성장 여부는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연환뉴스

▲ 코스피지수	1,928.17 (+19.95)
▲ 코스닥지수	517.53 (+2.39)
▼ 금리 (국고채 3년)	2.78% (-0.02)
▼ 원·달러 환율	1,090.70원 (-0.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아시아나항공 3분기 흑자 전환

원화강세로 802억 순익

아시아나항공은 연결기준 3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적자에서 80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원화 강세 덕분이라고 아시아나는 설명했다. 매출액은 1조566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

은 1089억원으로 39.6% 감소했다.

항공기 도입에 따른 급유량과 임차료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6월 이후 항공기 7대를 도입해 미주 하위 노선을 늘리는 등 여객기의 장거리 노선을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화물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연환뉴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 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운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